

#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및 사회학 부교수, 사회학 전공  
eunkisoo@snu.ac.kr

- I. 머리말
- II. 기존 연구 검토
- III. 자료, 변수 및 가설
- IV. 여가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의 관계
- V.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 분석
- VI. 텔레비전 시청의 회귀분석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인류 사회가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은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한다고 예측하였다.<sup>1)</sup> 기계화·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인간은 노동에서 점차 해방되고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다른 한편, 미국의 경제학자 스코르는 미국사회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래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가 증가한다는 명제는 틀렸다고 주장하였다.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시간과 여가의 관계를 둘러싼 정반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회의 성격이 변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기계화·자동화가 진전될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는 매우 논리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검증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후기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미국사회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술의 진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있어도 한국인들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길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 단계에서는 새벽별을 보고 나가 한밤중에 돌아오는 노동자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시간을 기록하였다. 그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 편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든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

---

1) Jonathan Gershuny,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 Juliet Schor, *The Overworked American*(New York: Basic Books, 1992); Juliet Schor, *The Overspent American*(New York: Harper Perennial, 1998).

면 일반인들은 여가를 누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된다.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들면 그 대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절대 빈곤 사회에서 벗어나고 이른바 물질적 가치에서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하면서 개인들은 더 많은 여가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도 이제는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1997년 후반에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의 개편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여가 생활을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의 하나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2003년에 주5일 근무제가 법제화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일상 생활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주중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에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를 보내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이틀을 온전히 여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여가활용 방식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대 한국인의 여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보상자라고 불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여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다. 2004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1996년에는 1주일에 21.4시간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에 보냈고, 2000년에는 23.7시간을, 그리고 2004년에는 22.2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여가 중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일과 여가를 둘러싼 논란과 못지않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이미 오래전에 여가를 텔레비전이 식민화하고 있다는 주장<sup>4)</sup>이 제기되어 한국사회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여가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통계청, 2004).

4) H. Sahin and John P. Robinson, "Beyond the Realm of Necessity: Television and the Colonization of Leisure,"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3, no. 2(1981), pp. 85-95.

보내는 현상 및 문제점이 지적되었다.<sup>5)</sup>

그런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이렇다 할 주목도 받지 못하고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무심코 넘어간 부분이 있다. 여가의 대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낸다는 것은 미디어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지만 여가시간의 성별 차이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에 관한 쟁점은 아무도 뚜렷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쳐왔다. 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혹은 텔레비전 시청에서는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가 및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나 미디어 논의에서 이 부분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여자의 여가는 남자의 여가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오염성(contamination)’이다. 남자들은 여가를 즐기는 경우 어떤 시간대에 한 가지 여가행위만 즐긴다. 즉,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여가의 하나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시에 아이를 보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자의 여가는 남자의 여가와 달리 ‘순수한’ 여가가 적고 다른 행위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분절성(fragmentation)’이다. 여가가 일정 시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행위를 하는 중에 다른 행위가 끼어들고 나중에 다시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는 식으로 여가가 전개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sup>6)</sup> 오염성과 분절성의 정도가 높아지면 설령 여가시간이 길어져도 그 자체가 질 높은 여가라고 말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여가의 성별 차이 혹은 성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가의 오염성과 분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절대 시간의 측면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충분한 여가를 누리고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가 가운데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조차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지 혹은 적은지가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여가시간 가운데

5) 이재현,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텔레비전』(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6) Marybeth Mattingly and Suzanne M. Bianchi,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vol. 81, no. 3(2003), pp. 999-1030; Michael Bittman and Judy Wajcman,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vol. 79, no. 1(2000), pp. 165-189.

텔레비전과 같은 소극적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여가시간에 성별 차이 혹은 성별 불평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쟁점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전통시대에서 근대사회로, 근대사회에서 후기 근대사회로 이행해가면서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에서도 여가시간이 증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여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시청이 여가시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성별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여가를 다룰 때 여가의 성별 차이를 논하면서 여성 여가의 오염성·분절성 등을 논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가시간이 텔레비전 시청을 중심으로 성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여가시간의 성별 차이, 특히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둘러싼 성별 차이에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당연히 간주해왔다. 이 연구는 먼저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유급노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은 별로 경감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sup>7)</sup>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량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의 총 노동시간이 더 길다.<sup>8)</sup> 서구의 경우 남자들은 노동시간이 늘어나도 여가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가사노동 등 다른 시간을 줄일 뿐 여가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성노동은 증가하고 가사노동은 크게 경감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시간과 여가, 특히 여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 사이에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면, 총 노동시간이 긴 여자가 총 노동시간이 짧은 남자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는

7) 은기수,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3권 3호(2009), 145-171쪽.

8) 은기수, 위의 논문.

논리적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가시간 특히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중심으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둘러싼 성별 차이, 더 나아가서는 성별 불평등 현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 검토

거슈니(Gershuny)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노동과 여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왜 그러한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근대사회는 인류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동했다고 한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층은 매우 적었으며 이는 엘리트층에서나 가능하였다. 산업화 단계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대의 시기 혹은 후기 산업사회 단계에서는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대신 소비를 위한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는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시간 유형이 수렴되면서 여가의 활용도 계층에 따른 분화의 정도가 약해진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거슈니와 같은 맥락에서 로빈슨과 고드비도 시간일기(time-diary)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사회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는 증가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다.<sup>10)</sup>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1965년에 유급노동에 소비된 시간은 1주일에 29.4시간이었다. 이 유급노동시간이 1975년에는 28.5시간, 1985년에는 28.3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여가는 1965년에 1주일에 34.8시간에서 1975년에는 38.7시간, 그리고 1985년에는 39.6시간으로 20년 동안 4.8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들의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변화이다. 미국사회에서 1975년에 사람들이 1주일 동안 텔레비전 시청에 들인 시간은 10.4시간이었다. 그런데 1975년에는 14.9시간으로 4.5시간이 증가하였고, 1985년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15.1시간으로 1975년부터

9) Jonathan Gershuny, *op. cit.*(2000).

10) John P. Robinson and Geoffrey Godbey,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1985년 사이에는 0.2시간만 증가하였다. 사힌과 로빈슨이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무려 4.5시간이나 증가한 것을 두고 텔레비전이 자유시간을 식민화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sup>11)</sup>,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아 텔레비전의 자유시간 식민화 주장이 지금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이다. 미국사회에서 1965년에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9.3시간인 반면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10.4시간으로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여자보다 1.1시간 더 길었다. 1975년에는 여자가 14.1시간인 반면 남자는 14.9시간으로 역시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0.8시간 더 많았다. 1985년에는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4.5시간인 반면 남자들은 15.1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하여, 이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1965년부터 1985년까지 성별을 불문하고 고용상태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실업상태에 있으면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뚜렷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13)</sup>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듯이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텔레비전을 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로빈슨과 고드비는 단지 고용상태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뿐, 유급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 사이에 선형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비선형의 관계가 있는지 등은 보여주지 않았다. 시간일기 자료를 분석하는 이점 중의 하나가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각 시간량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해볼 수 있는 것인데, 로빈슨과 고드비의 연구에서는 단지 고용상태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재현이 텔레비전 시청에 관해 이론적인 논의와 경험적인

11) H. Sahin and John P. Robinson, *op. cit.*(1981); Robinson, John P, "Television and Leisure Time: A New Scenario,"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0, no. 1(1981), pp. 120-130.

12) John P. Robinson and Geoffrey Godbey, *op.cit.*(1997), p. 145.

13) *Ibid.*

분석을 실시했다.<sup>14)</sup> 그는 한국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분석하여 사헌과 로빈슨의 텔레비전의 여가 식민화 논지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였고, 일상 생활이 사사화(privatization)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존의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분석해왔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간일기 자료인데, 이 자료는 응답자에게 주어진 날짜 동안 매 10분 혹은 15분 간격으로 자신의 하루 활동내역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좋은 자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들여 정확하게 기록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시간일기 자료가 보다 정확한 자료를 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sup>15)</sup> 다른 하나는 응답자에게 지난 1주일간 혹은 하루 동안 여러 활동유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및 기타 자유시간의 여러 항목에 들인 시간이 계산된다.

한국에서 텔레비전 시청에 관해 시간일기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김복수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6)</sup> 그는 1999년 통계청이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미디어 활용시간을 보고하였다. 김복수는 남자의 여가가 여자의 여가보다 더 많고, 특히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33.16분인 데 반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128.0시간임을 표에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이 표를 보면 한국에서도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보다 더 긴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표를 제시하고 본문의 논의에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47분 정도 여가가 더 많고, 전체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 비율은 여성 44.7%, 남성 40.0%로 여성이 남성보다 4.7%

14) 이재현, 앞의 책.

15) F. T. Juster, "The Validity and Quality of Time Use Estimates Obtained from Recall Diaries" In T. F. Juster and F. P. Stafford (Eds.), *Time, Goods, and Well Being*.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985); John P. Robinson and Geoffrey Godbey(1997), *op. cit.*

16) 김복수, 「한국인의 여가와 미디어 사용」, 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석(저),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1. 생애주기적 접근』(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25-263쪽.

17) 김복수, 위의 논문, 258쪽, <표3>.



더 많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sup>18)</sup> 김복수는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남자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높은 것에 주목하여 남자와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는 간과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텔레비전 시청 행태 분석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용준에 따르면 KBS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평일에는 2시간 24분, 토요일에는 2시간 52분, 일요일에는 3시간 46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낸다고 한다.<sup>19)</sup> 그는 또 1983년부터 주당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말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평일보다 더 긴데 이는 한국인들이 증가하는 여가를 다른 활동에 앞서서 텔레비전 시청으로 더 많이 보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sup>20)</sup>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노동시간이 감소했는데, 이에 반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여가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늘어난 여가는 곧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의 1965-1975년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미국인의 자유시간을 텔레비전이 식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로빈슨을 언급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최용준은 직접 실시한 인터넷 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여자집단이 남자집단에 비해 일일 텔레비전 시청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 일일평균 텔레비전 시청량은 여자집단이 남자집단에 비해 약 21분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3)</sup> 요일별로는 평일에 여자가 남자보다 14분가량 텔레비전을 더 보고 일요일에는 30분가량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에 성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가 더 크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18) 김복수, 앞의 논문, 237쪽.

19) 최용준, 『주5일 근무와 TV 시청』(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86쪽.

20) 최용준, 위의 책, 87쪽.

21) 최용준, 위의 책, 87쪽.

22) 최용준, 위의 책, 88쪽.

23) 최용준, 위의 책, 235쪽.

조사결과는 임의할당 표본 방식의 인터넷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로는 2001과 2005년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 연구가 있다. 조성호가 책임 집필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요일에 관계없이 집 안에서의 여유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남성의 경우 평일 시청 시간은 2시간 37분, 토요일은 평일보다 32분 더 많은 3시간 19분, 일요일은 평일보다 56분 더 많은 3시간 43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평일은 3시간 4분, 토요일은 평일보다 49분 더 많은 3시간 53분, 일요일은 평일보다 1시간 7분 더 많은 4시간 11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 여성이 남성보다 38분 정도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집 안에서 여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5)</sup> 이은미 등<sup>26)</sup>은 2005년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지상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남성보다 약 20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라는 식으로 간단히 남자보다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긴 것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 다른 2001년도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분석 보고서가 강익희와 은혜정에 의해 만들어졌다.<sup>27)</sup> 이들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피플미디어를 사용하여 수집한 월별 시청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시청률 자료 분석에서도 여자는 하루 평균 3시간 42분, 남자는 2시간 22분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28)</sup> 결과적으로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시청량의 남녀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하면서 텔레비전 시청의 남녀 차이는 외부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한국인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관한 자료의 영향력이 더 큰 분석결과

24) 조성호, 『2001년 TV 시청행태 연구』(방송위원회, 2001).

25) 조성호, 위의 책, 51-52쪽.

26) 이은미·정용찬, 『2005년 TV 시청행태 연구』(방송위원회, 2005).

27) 강익희·은혜정, 『TV 시청률과 시청 행태』(한국방송진흥원, 2002).

28) 강익희·은혜정, 위의 책, 18-19쪽.

29) 강익희·은혜정, 위의 책, 19쪽.

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분석결과이다. 통계청은 매년 사회지표 구성을 위해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모듈을 두어 미디어 활용 등 여가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조사결과를 보면 남자는 1주일간 텔레비전을 보는 데 20.6시간을 들인 반면 여자는 23.6시간을 들었다. 2007년 조사결과 역시 남자는 1주일간 20.3시간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소비했고, 여자는 이보다 많은 22.7시간을 들여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sup>30)</sup>

가족학 분야에서 이기영 등은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들은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다 남편이나 부인 모두 텔레비전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아 여가의 많은 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sup>31)</sup>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량이나 성별 차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하루 평균 텔레비전을 얼마나 시청하는가’라는 식의 설문항을 이용한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조성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집 안에서 여유시간이 더 많은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당연히 더 길다고 추측해왔다. 기존 연구결과 검토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설문항을 채택한 조사자료 분석에서 항상 일관되게 남자보다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성별 고용상태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가 이미 밝혀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별 고용상태 혹은 유급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집 안에서의 여유시간이 보다 많은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여가에서의 성별 차이, 특히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서의 성별 차이, 그리고 이를 좀 더 확대하면 여가의 성별 불평등성에 관해서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통계청, 앞의 책(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07).

31) 이기영·이연숙·김의숙·조희금 등 공편,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서울대출판부, 2001), 227쪽.

### III. 자료, 변수 및 가설

이 연구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표본가구를 선정한 후 표본가구 내에 거주하는 10세 이상의 가구원이 응답자가 된다. 즉, 10세 이상의 시간일기를 기록하는 조사인 것이다. 통계청은 모든 응답자에게 이틀치의 시간일기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가와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여가의 정의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은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및 여가로 구분되는데,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애매하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성인의 유급노동과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명백한 유급노동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공부를 여가로 간주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 연구의 범위를 학생을 제외한 성인들의 여가 및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연구로 정하였고, 분석대상은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10세 이상의 응답자 가운데 20세 이상이면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성인 응답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한 개인이 이틀치 시간일기를 작성한다. 따라서 시간일기를 단위로 할 경우 응답자의 두 배가 되는 자료가 생성되는데, 이런 자료 처리를 두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첫째, 이틀치의 시간일기 기록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의 몇몇 시간연구 연구자들은 이틀치 기록을 검토해보면 첫째 날 기록보다 둘째 날 기록이 좀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 연구에서도 이틀치 기록 중 둘째 날 기록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sup>32)</sup> 둘째, 모든 시간일기를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배경변수가 동일한 두 기록이 있고, 이 기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귀분석 등의 경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응답자들의 이틀치 기록 중 둘째 날의 시간일기

---

32)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간일기 기록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결과 모두 25,262개의 시간일기가 분석되었다.<sup>33)</sup>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활용된다.

종속변수: 텔레비전 시청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시간을 단위로 측정된다.

독립변수:

1) 성: 이 연구의 초점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에 있기 때문에 성별 변수가 독립변수로 이용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가 확인되면 다시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분리해서 남자와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2)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개인유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24시간 동안 다른 행위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특히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포함된 여가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다. 기존의 논의가 고용상태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유급노동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유급노동시간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

3) 교제, 운동, 컴퓨터, 취미활동시간: 여가 내에서도 교제, 운동, 컴퓨터, 취미활동 시간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함께 여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이들 하위 여가활동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여가활동들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미국의 연구는 남자가 여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김복수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텔레비전 시청

---

33) 이렇게 한정된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 논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필자에게 연락하면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행태 연구나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연구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국에서 일반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와는 달리 남자가 여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고 가정하여 남자와 여자 중 실제로 누가 더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가설 1: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보다 더 길다.

둘째, 기존 연구를 보면 고용상태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차이가 있다.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적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남자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의 증가가 여가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유급노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여가시간 특히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미미한 상황에서 여성의 증가하는 유급노동은 여가시간의 감소, 특히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설 2: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 및 그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IV. 여가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의 관계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하루 일상생활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개인유지활동 그리고 여가 사이의 분포를 알 수 있다. 다음 표1은 이들의 관계를 요일과 성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먼저 남자의 경우 평일에는 하루 24시간 중 18.4시간(76.5%)을 유급노

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등으로 보내고 나머지 시간이 여가가 된다. 토요일에는 여가를 제외한 시간이 17.3시간(72.0%)으로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여가를 제외한 시간이 다시 15.5시간(64.4%)으로 감소한다. 즉, 이는 평일에서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남자들의 여가가 증가함을 뜻한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평일에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및 개인유지로 18.6시간(77.4%)을 소비해 남자들보다 여가시간이 적다. 토요일에 여자들은 18.1시간(74.9%)을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에 소비해 남자들보다 0.8시간 더 많이 이 범주의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자유시간은 남자들보다 더 적어진다. 일요일에 남자들은 15.5시간만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에 사용했지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1.6시간이나 더 많은 17.1시간(70.5%)을 이 범주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들의 자유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남자들의 자유시간보다 더 적어진다.

그러나 표1에서 두드러진 점은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활동의 범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하위 범주가 바로 텔레비전

표1-성별, 요일별, 행위유형별 시간 분포

(단위: 시간, %)

활동유형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유급노동	7.1(29.4)	3.9(16.3)	5.6(23.2)	3.0(12.3)	2.7(11.2)	1.7( 7.0)
무급노동	0.7( 3.1)	4.1(17.1)	1.0( 4.1)	4.4(18.2)	1.2( 4.9)	4.0(16.8)
개인유지	10.6(44.0)	10.6(44.0)	10.7(44.7)	10.7(44.4)	11.6(48.3)	11.4(47.7)
학습	0.2( 0.8)	0.2( 0.8)	0.2( 0.9)	0.1( 0.4)	0.2( 0.8)	0.1( 0.5)
종교활동	0.1( 0.3)	0.2( 1.0)	0.1( 0.3)	0.2( 0.9)	0.3( 1.1)	0.6( 2.4)
참여/봉사	0.1( 0.5)	0.1( 0.3)	0.1( 0.3)	0.1( 0.3)	0.0( 0.2)	0.0( 0.1)
관람/문화	0.0( 0.1)	0.0( 0.1)	0.0( 0.2)	0.1( 0.3)	0.1( 0.3)	0.1( 0.2)
교제	1.0( 4.0)	1.1( 4.7)	1.3( 5.6)	1.5( 6.1)	2.0( 8.2)	1.5( 6.4)
운동	0.4( 1.8)	0.4( 1.5)	0.5( 2.2)	0.4( 1.7)	0.5( 2.2)	0.3( 1.2)
취미활동	0.9( 3.8)	0.7( 2.8)	1.1( 4.7)	0.8( 3.4)	1.1( 4.7)	0.8( 3.5)
텔레비전 시청	2.0( 8.3)	2.0( 8.3)	2.3( 9.4)	2.2( 9.0)	3.2(13.3)	2.7(11.2)
독서	0.3( 1.1)	0.2( 0.8)	0.3( 1.2)	0.2( 0.7)	0.3( 1.1)	0.2( 0.7)
컴퓨터	0.4( 1.6)	0.2( 0.8)	0.4( 1.9)	0.2( 0.7)	0.6( 2.5)	0.2( 0.9)
음악감상	0.1( 0.3)	0.1( 0.2)	0.1( 0.3)	0.1( 0.2)	0.1( 0.3)	0.1( 0.2)
기타	0.2( 0.9)	0.3( 1.3)	0.2( 1.0)	0.3( 1.4)	0.2( 1.0)	0.3( 1.2)
합	24.0(100)	24.0(100)	24.0(100)	24.0(100)	24.0(100)	24.0(100)

시청이라는 점이다. 남자나 여자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2시간(8.3%)부터 3.2시간(13.3%)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 모두 평일에는 하루 2시간(8.3%)을 텔레비전을 보는 데 사용한다. 토요일에 남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하루 2.3시간(9.4%)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2.2시간(9.0%)이다. 일요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데 소비하는 시간의 격차가 더 커져 남자의 경우 3.2시간(13.3%)이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적은 2.7시간(11.2%)만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낸다.

텔레비전 시청 다음으로 여가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교제활동인데 평일 남자 1시간(4.0%)부터 일요일 남자 2시간(8.2%)으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우리는 표1을 통해서 하루 24시간의 활동 중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유급노동, 개인유지활동 혹은 무급노동을 제외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이 아닌, 일상생활 중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텔레비전 시청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2-여가시간 중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시간)

활동유형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학습	3.5	3.5	3.1	1.7	2.2	1.7
종교활동	1.1	4.6	0.9	3.5	3.1	8.2
참여/봉사	2.3	1.4	1.1	1.1	0.4	0.5
관람/문화	0.4	0.4	0.7	1.1	0.8	0.8
교제	17.2	20.7	20.0	24.4	22.9	22.4
운동	7.6	6.7	8.0	6.6	6.1	4.1
취미활동	16.1	12.3	16.9	13.4	13.2	12.4
텔레비전 시청	35.4	36.7	33.8	35.9	37.3	39.3
독서	4.8	3.3	4.2	2.9	3.2	2.3
컴퓨터	6.7	3.5	6.6	2.9	7.1	3.2
음악감상	1.1	0.9	1.0	0.9	0.9	0.8
기타	3.9	5.9	3.6	0.5	2.7	4.2
합	100(5.6)	100(5.4)	100(6.7)	100(6.0)	100(8.5)	100(6.8)



표2는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의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일 남자들의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5.4%이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36.7%이다. 남자들이 토요일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여가에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토요일 남자 여가의 33.8%를 차지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약간 낮아진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일요일은 텔레비전의 날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여자의 경우 여가의 거의 4/10에 육박하는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며, 남자의 경우에도 일요일에는 여가의 37.3%를 텔레비전 앞에서 소비한다.

사헌과 로빈슨의 오래전 주장대로 여가시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3을 넘어 4/10에 육박하는 현실은 '텔레비전 시청의 여가의 식민화'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여가 시간의 많은 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복수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에 이어<sup>34)</sup> 2004년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1과 표2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자보다 남자의 여가가 더 많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남자의 시청 시간이 여자의 시청 시간보다 더 길다는 점이다. 가설 1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간일기 자료를 분석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도 길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더 길다. 그러나 표2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자의 경우 여가시간은 남자보다 적지만,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가 동안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 시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로빈슨의 논의를 이어 한국에서도 이기영 등이 주장한, 여성들은 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여가를 선호한다는 논의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sup>35)</sup>

다음은 텔레비전 시청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다음 표3은 요일과 성별로 나누어 몇 가지 변수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더 정밀한 통계적 검증은 다음 절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평균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34) 김복수, 앞의 논문.

35) 이기영, 앞의 책.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는 주요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표3에서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원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령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요일과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연령과 텔레비전 시청

표3-요일별·성별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

(단위: 시간)

변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20대	1.4	1.5	1.6	1.8	2.4	2.3
30대	1.4	1.5	1.9	1.8	2.8	2.4
40대	1.8	1.8	2.0	2.0	3.2	2.5
50대	2.3	2.1	2.4	2.2	3.4	2.7
60대	3.0	2.5	3.2	2.5	3.8	3.1
70대	3.9	3.1	3.9	3.2	4.6	4.1
혼인상태						
미혼	1.6	1.3	1.8	1.8	2.7	2.5
유배우	2.0	1.9	2.3	2.1	3.3	2.6
사별/이혼	3.0	2.7	2.9	2.7	4.0	3.3
유급노동						
1시간 미만	3.7	2.7	3.5	2.7	3.8	3.0
3시간 미만	3.3	2.2	2.7	2.3	3.5	2.8
5시간 미만	2.9	2.0	2.6	1.9	3.1	2.3
8시간 미만	2.0	1.4	2.0	1.6	2.3	1.7
8시간 이상	1.2	0.9	1.3	0.9	1.3	0.9
무급노동						
1시간 미만	1.8	1.5	2.1	1.9	2.9	2.4
3시간 미만	2.5	1.9	2.7	2.1	3.7	2.7
5시간 미만	2.7	2.2	2.6	2.3	3.7	2.9
8시간 미만	2.6	2.4	2.3	2.4	3.1	2.6
8시간 이상	1.8	1.7	1.6	1.8	1.4	1.9
총 노동						
1시간 미만	3.7	3.4	3.5	3.2	3.6	3.2
3시간 미만	4.0	3.5	3.7	3.2	4.0	3.4
5시간 미만	3.2	3.1	2.8	3.0	3.7	3.2
8시간 미만	2.2	2.5	2.3	2.4	2.8	2.8
8시간 이상	1.3	1.3	1.3	1.4	1.4	1.5

시간과의 관계만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평일과 토요일에 젊은 남자들은 동일한 연령대의 여자들에 비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약간 적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요일에 관계없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언제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들은 요일과 나이에 관계없이 여자들보다 텔레비전을 더 오래 시청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나 방송위원회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 조사 분석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인 것이다.

혼인상태별로도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일과 성별에 관계없이 미혼보다는 유배우자가, 유배우자보다는 사별이나 이혼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혼인상태는 연령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표3에 나타난 혼인상태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연령의 효과가 아닌 순수한 혼인상태의 효과인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관심대상인 유급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요일과 성별에 관계없이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하며, 이 관계는 일관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총 노동시간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시간이고 유급노동시간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선형의 관계에 있지만 무급노동시간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비선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의 관계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의 관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총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이는 무급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관계 때문이다.

표3은 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보다 더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선형으로 감소하지만, 무급노동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비선형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 분석

지금까지 텔레비전 시청이나 여가에 관한 분석은 시간량의 분석에 머물러 왔다. 하루 24시간의 일상생활에서 시간대별로 여가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대별로 텔레비전 시청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시간대별 분석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김복수의 연구에서 간단하게 텔레비전 시청량을 시간대별로 볼 수 있었을 뿐 일상생활의 시간대 분석이 간과되어왔다.<sup>36)</sup> 그 이유는 시간대 분석의 경우 통계적인 정밀성 분석이 어렵고 탐색적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도 통계적인 정밀성은 확보하지 못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탐색적인 차원에서 텔레비전 시청의 시간대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1은 요일별로 하루 생활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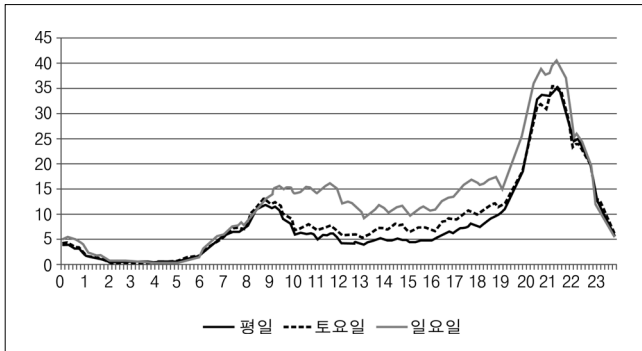


그림1-요일별 텔레비전 시청의 시간대 분포

그림1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평일과 토요일의 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 유형은 비슷하다는 점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의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고 그 외의 시간대에서는 평일과 토요일의 텔레비전 시청률이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일요일의 텔레비전 시청률은 다른 요일과 차이가 난다. 일요일에는 오전 8시를 넘으면 텔레비전

36) 김복수, 앞의 논문.

시청 비율이 다른 요일과 확연히 차이가 나게 증가한다. 오후 7시부터는 이 차이가 줄어들지만, 오후 9시 이후부터 10시 정도 사이에도 일요일의 텔레비전 시청률이 다른 요일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0시를 넘어서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텔레비전 시청률이 평일이나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한다.

다음 그림2-1부터 그림2-3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성별 텔레비전 시청률의 시간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요일에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률의 시간대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시청의 시간대 분포가 성별로 아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다. 먼저, 평일과 토요일 아침에 남자들의 텔레비전 시청률이 여자들의 시청률보다 먼저 높아지기 시작한다. 즉, 하루가 시작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여자들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등 가사노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이른 아침 시각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여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비율이 남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비율을 앞지르고 오전 9시쯤에 여자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일단 하나의 고점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남자들의 텔레비전 시청은 여자들과 같은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완만하게 감소한다.

오전 10시가 지나가면 남자와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률에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여성들도 오전 10시가 지나면 더 이상 텔레비전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남성들도 일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텔레비전을 10시 넘어서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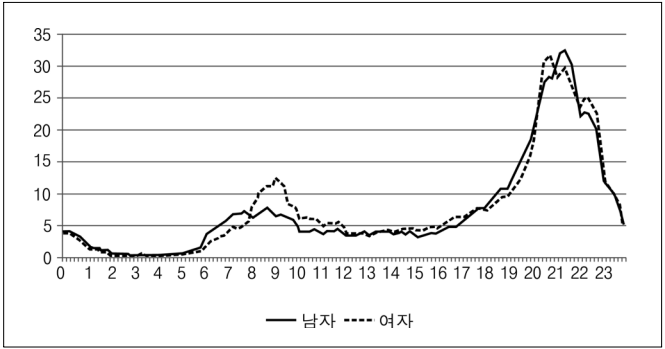


그림2-1-평일 성별·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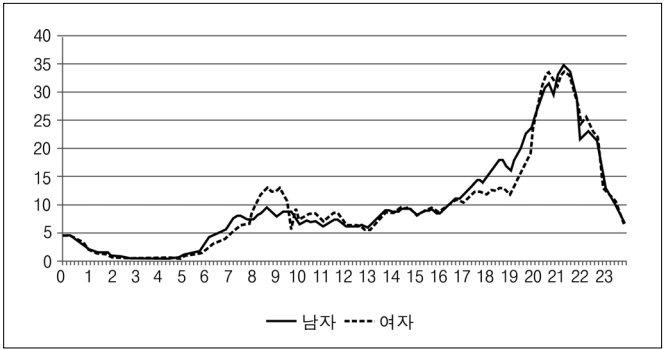


그림2-2-토요일 성별·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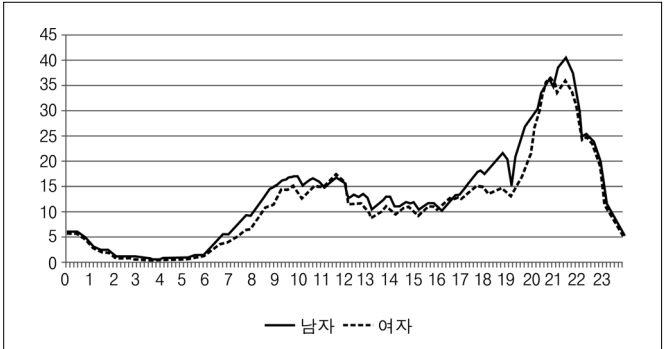


그림2-3-일요일 성별·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 비율

그러다 오후 5시를 넘어서면 다시 남자들의 텔레비전 시청률이 여자들의 텔레비전 시청률을 앞지르게 된다. 즉,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대가 되면 남자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이 여자들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여자들은 다시 저녁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을 행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텔레비전을 보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저녁식사를 하거나 마치는 시간대가 되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률도 남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오후 8시 이후의 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림2-1부터 그림2-3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시청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조성호의 주장처럼 여자가 집에서 여유 있는 시간이 많아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남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sup>37)</sup> 그러나 위의 그림2-1, 2-2, 2-3은 남자와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유형이 비슷하고 오히려 오전과 오후에는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보다 더 일찍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에서 남자의 시청 행태와 구분되는 점은, 오전에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늦게 보기 시작한 여자가 오전 8시를 넘어서 10시쯤까지는 전체 여성의 15% 정도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남자와 구분될 정도로 특이한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보이는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인데, 이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은 평일과 토요일에 15%를 넘지 않는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집 안에서 여유가 많아’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한다고 유추할 근거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적인 수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분석과 그림을 통한 텔레비전 시청률의 시간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보다 더 많고, 남자와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률 시간대 분포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오전과 오후 모두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시점이 늦으며, 단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가 남자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와

37) 조성호, 앞의 책.

약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청률은 평일과 토요일에 15%를 넘지 않아, 결국 여자가 ‘집 안에서 여유가 많아’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 VI. 텔레비전 시청의 회귀분석

이제 이 절에서 남성과 여성의 텔레비전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자. 다음 표4는 20세 이상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성인 응답자들의 둘째 날 시간일기 기록을 가지고 텔레비전 시청에 성별, 유급노동시간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모형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3.89***	5.85***	12.87***
남자	0.53***	0.27***	0.31***
20대	-0.34***	-0.19***	-0.08*
30대	-0.25***	-0.10***	-0.00
50대	0.13***	0.02	0.01
60대	0.42***	0.24***	0.16***
70대	0.84***	0.50***	0.39***
미혼	0.11*	-0.26***	-0.33***
사별 또는 이혼	0.00	-0.03	0.00
고등학교	-0.21***	-0.25***	-0.24***
전문대 이상	-0.48***	-0.60***	-0.62***
지난 주 일했음	-1.19***		
평일	-0.18***	0.04	-0.09***
일요일	0.74***	0.29***	0.16***
유급노동시간		-0.27***	-0.54***
무급노동시간		-0.21***	-0.52***
개인유지시간		-0.16***	-0.47***
교제			-0.55***
운동			-0.46***
취미활동			-0.62***
컴퓨터			-0.48***
R <sup>2</sup>	0.20	0.34	0.59
N	25262	25262	25262

주: \*\*\*p<0.001, \*\*p<0.01, \*p<0.05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자. 텔레비전 시청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0대를 준거범위로 놓고 분석한 결과 40대보다 젊을수록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감소한 반면,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증가한다. 그러나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시간 및 몇 가지 하위 여가범주를 집어넣은 모형 3을 보면 30대, 40대, 50대 사이에는 연령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즉, 아주 젊거나 아주 나이가 든 층에서만 연령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미혼인 사람은 유배우자나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에 비해 텔레비전을 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들 사이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도 증가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도 이와 같은 논의를 지지해주고 있다.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에 비해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는 하루에 0.6시간 텔레비전을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토요일보다 평일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약간 적고, 일요일에는 토요일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다(모형 3).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 남자는 여자에 비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1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하루 0.53시간, 모형 3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하루 0.31시간 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고용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주일간 소득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지난 주 일했음'이 바로 그 변수이다.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하루 1.19시간이나 텔레비전을 덜 본다(모형 1).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그러한 고용상태 규정과 상관없이 매일 유급노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직접 유급노동시간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도 역시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한다.

무급노동시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유급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무급노동시간도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모형 3). 교제, 운동, 취미활동, 컴퓨터 등 다른 여가도 증가하면 여가의 일부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역시 감소하게 된다.

우리는 표4를 통해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요일 등을 통제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더 길고, 유급노동, 무급노동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5-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회귀분석: 평일 성별 분리 모형

변수	남성		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상수	6.25***	12.55***	6.52***	12.07***
20대	-0.57***	-0.52***	0.29***	0.31***
30대	-0.15***	-0.08	-0.02	0.02
50대	0.03	0.00	-0.03	-0.02
60대	0.27***	0.20***	0.13*	0.11*
70대	0.56***	0.40***	0.18**	0.32***
미혼	-0.13*	-0.20***	-0.37***	-0.40***
사별 또는 이혼	0.18*	0.16*	0.07	0.06
고등학교	-0.31***	-0.25***	-0.34***	-0.34***
전문대 이상	-0.75***	-0.68***	-0.75***	-0.73***
유급노동시간	-0.26***	-0.51***	-0.28***	-0.00***
무급노동시간	-0.22***	-0.50***	-0.24***	-0.00***
개인유지시간	-0.16***	-0.45***	-0.20***	-0.00***
교제		-0.51***		-0.48***
운동		-0.44***		-0.41***
취미활동		-0.54***		-0.60***
컴퓨터		-0.47***		-0.42***
R <sup>2</sup>	0.40	0.60	0.35	0.54
N	6877	6877	8221	8221

주: \*\*\*p<0.001,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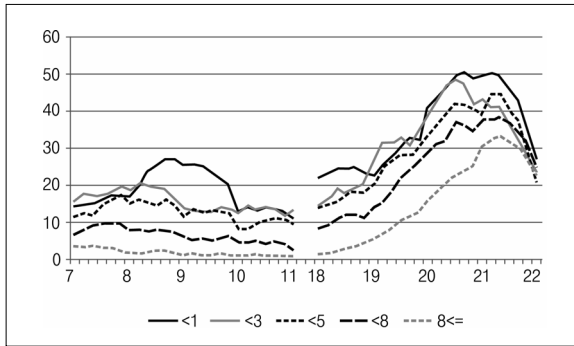
표5는 평일 남성과 여성으로 자료를 구분한 후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5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미 성별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이전의 분석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로 자료를 분리하여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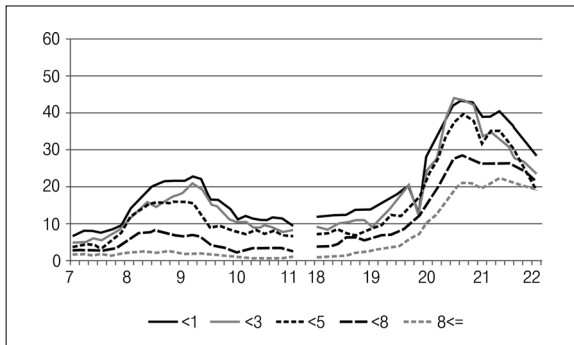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자유시간의 몇 가지 하위범주를 포함한 모형 2에서 유급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0.5시간 감소한다. 평일에 남성의 무급노동도 1시간 증가하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역시 0.5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여가의 다른 하위범주도 증가할수록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경향은 비슷하나 영향력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모형 1에서 유급노동시간의 증가, 무급노동시간의 증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는 모두 여성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가의 몇 가지 하위범주를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유급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한다고 해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급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한다고 해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시청과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여가 유형을 통제한 경우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활동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 사이에는 남자와 동일한 관계와 영향력이 관찰되지만, 텔레비전 시청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추가 되면 유급노동, 무급노동 시간이 텔레비전 시청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5는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개인유지활동시간 등을 모두 연속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노동시간 등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유급노동시간을 범주화하여 다시 분석해 보았다. 다음 그림3은 성별로 유급노동시간량에 따른 오전과 오후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



여자

그림3-평일 남자와 여자의 유급노동시간별 텔레비전 시청 비율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의 경우 평일에 전혀 일하지 않는 남자의 오전 텔레비전 시청 유형은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과 다르다. 전혀 일하지 않는 남성의 텔레비전 시청 유형은 여성의 텔레비전 시청 유형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한 고점을 기록하는 유형을 띤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급노동의 시간량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 비율에서 시간대별 유형이 비슷한 양상을 띤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남자는 유급노동시간량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 비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전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해도 3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남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일을 오래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길다. 반면에 여자들의 경우 오전에 5시간 이하로 유급노동을 하는 여자들은 텔레비전 시청 유형에 큰 차이가 없고 이는 곧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자들도 장시간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현저히 낮아진다.

## VII. 맺음말

이 연구는 여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시청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가 증가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슈니의 거시적인 논의부터 로빈슨의 미시적인 경험적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이 일자리를 점점 없애는 반면 사람들의 소비생활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소비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up>38)</sup>. 이러한 갈등적인 논의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자료의 문제, 분석상의 문제, 개인이 아닌 가족 혹은 가구를 단위로 해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증가하든지에 관계없이 텔레비전 시청은 여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러 이유로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휴일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의 여가 유형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막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에 한국인의 여가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 및 여가 중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주5일 근무제가 더 확산되고 여가 문화가 바뀌었다면 2010년 현재 텔레비전 시청 행태는 2004년과 많이 다를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여가활동 및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의 여가와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20세 이상 학교에

---

38) Juliet Schor, op. cit (1998).

재학 중이지 않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둘째 날 시간일기 자료를 가지고 한국인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특히 통계청에서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한국의 사회지표로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 텔레비전 시청 행태 중 대표적인 결과인 여자가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는 항상 남자보다 여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시간배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간일기 자료인 2004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9년에 이어 2004년에도 여자보다 남자가 오히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결과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가 더 많았다. 그러나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았다. 즉, 여자들은 절대시간으로는 남자보다 텔레비전을 덜 시청하지만, 부족한 여가 내에서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이는 여가에서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다시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서의 성별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24시간의 하루 생활 가운데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개인유지활동시간 및 여가의 다른 하위 범주와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흔히 유급노동시간이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결과 유급노동시간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반비례하는 선형의 관계, 무급노동시간과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비선형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서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유급노동의 증가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고 불린다. 그러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향적인 전달 기능을 갖춘 텔레비전이 현실화되면서 텔레비전 시청은 여가생활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닌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여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극적인 여가활동인 텔레비전 시청이 차지하는 것은 한국사회 여가의 빈곤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여가시간의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시간이 많았고, 여가 가운데 소극적 여가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여가 중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사실은 여가와 텔레비전 시청에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말해 주고, 더 나아가 이는 성별 불평등의 한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익희·은혜정, 『TV 시청률과 시청행태』. 한국방송진흥원, 2002.
- 김복수, 「한국인의 여가와 미디어 사용」. 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석 저,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1. 생애주기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25-263쪽.
- 은기수,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3권 3호, 2009, 145-171쪽.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 등 공편,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227쪽.
- 이은미·정용찬, 『2005년 TV 시청행태 연구』. 방송위원회, 2005.
- 이재현,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텔레비전』.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조성호, 『2001년 TV 시청행태 연구』. 방송위원회, 2001.
- 최용준, 『주5일 근무와 TV 시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86쪽.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통계청, 2004.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07.
- Bittman, Michael and Judy Wajzman,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vol. 79, no. 1, 2000, pp. 165-189.
- Gershuny, Jonathan,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Juster, F. T, "The Validity and Quality of Time Use Estimates Obtained from Recall Diaries" In T. F. Juster and F. P. Stafford (Eds.), *Time, Goods, and Well Being*.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985.
- Mattingly, Marybeth and Suzanne M. Bianchi,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vol. 81, no. 3, 2003, pp. 999-1030.
- Robinson, John P, "Television and Leisure Time: A New Scenario,"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0, no. 1(1981), pp. 120-130.
- Robinson, John P. and Geoffrey Godbey,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Sahin, H and John P. Robinson, "Beyond the Realm of Necessity: Television and the Colonization of Leisure,"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3, no. 2, 1981, pp. 85-95.
- Schor, Juliet, *The Overworked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1992.
- \_\_\_\_\_, *The Overspent American*.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8.



## 국 문 요 약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할수록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반대로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후기산업사회가 과소비사회로 진행하면서 후기산업사회에서도 노동시간은 감소하지 않고 여가도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노동과 여가시간과의 관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한국사회도 일상생활에서 여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가의 대부분은 소극적 여가의 하나인 텔레비전 시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은 성별로 차이가 난다.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길다. 그 결과 여가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길다. 또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길다. 그러나 여가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둘러싸고 성별 차이를 넘어서 성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무급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은 점차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는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고일** 2010. 9. 24.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10.

**주제어(keyword)** 유급노동(paid work), 무급노동(unpaid work), 여가(leisure), 여가의 식민화(colonization of leisure), 텔레비전 시청(TV viewing),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